제주 바다목장 시설물 관리에만 '급급'

한 해 7억원 예산 인공어초 등 시설 유지·보수에 집중
어획량·종 다양성 성과에도 현장 어업인 체감은 '글쎄'
수산자원 증대·어업인 소득 향상 실질적 성과 검증 필요

제주지역에 조성된 바다목장이 시설물 유지·보수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면서 어업인 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재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리중인 바다목장은 모두 6개소다. 사업별로는 연안바다목장(신창)은 1개소이며, 소규모 바다목장은 강정, 금능, 고성·신양, 북촌, 추자 등 5개소다. 신창 연안바다목장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50억원을 들여 바다목장체험관과 함께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872ha의 해역에 어초를 설치하고 돌돔·홍해삼·전복 등의 종묘를 방류해 바다목장으로 조성한 곳이다. 2023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06년부터 5개년 단위 사업으로 신양·고성을 시작으로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2022년 추자를 끝으로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연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바다목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바다목장이 인공어초 등 해양시설 보수·보강 등 유지 관리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창 연안바다목장 조성의 일환으로 설치된 바다목장체험관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사업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3년째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사업이 완료된 소규모 바다목장도 현재는 투입된 인공어초 가운데 기능이 떨어진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바다목장이 실제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매년 사후 영향조사와 함께 인공어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영향조사에는 어획량과 종 다양성 등 성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바다목장이 조성된 지역 어업인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바다목장이 조성된 한 지역의 어업인은 "바다목장 조성 당시에는 어획량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과거의 바다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기존 바다목장의 유지·관리와 함께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방향을 탄소중립과 블루카본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바다목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해상시설물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지만,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 블루카본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창 바다목장체험관의 경우 정상 운영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무엇을 고르든 비싸다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인 삼계탕과 냉면뿐 아니라 저렴한 한 끼로 여겨지는 김밥의 가격까지 지난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5일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서귀포시장에 김희찬 전 도관광교류국장

도, 임용 대상자 확정
중앙협력본부장에 강철준
대변인 부남철 각각 선정

김희찬 강철준 부남철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서귀포시장,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 임용 대상자가 확정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장에 김희찬 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 중앙협력본부장에 국가 공공기관 본부장 출신 강철준 씨, 대변인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부남철 씨가 선정됐다.

제주도는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3명의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장에는 31년간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희찬 전 관광교류국장이 선정됐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한 김 전 국장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총무과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제주도 세정담당관·총무과장·세계유산본부장·관광교류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주도는 이른 시일 안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34년간 경영기획·사업기획·지역진흥·경영지원 업무를 맡아 본부장까지 지낸 강철준 씨가 선정됐다. 강 씨는 자원·에너지 분야의 기술 전문성과 경영·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총괄해 왔다.

대변인에는 30년간 언론계에서 취재와 편집, 언론사 경영, 뉴미디어 분야를 두루 경험한 부남철 씨가 선정됐다. 1995년 취재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제주와 전국의 주요 현장을 취재했고, 국회 출입기자를 거쳐 뉴미디어국 신설과 인터넷신문 기반 구축을 이끄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국민의힘 도당 "도민의 다양성 무시한 의회 독주"

논평서 이창흠 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위 구성 비판

26일 열리는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의회가 구성한 인사청문위원회의 편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더불어민주당 8명, 진보당 1명으로 채워졌으며,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조례상 상임위원장 추천 형식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제1야당의 검증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여권 위주의 편의적 구성을 강행한 것은 도민의 다양성을 무시한 의회 독주다"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최근 열린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도민사회로부터 '행정 수행 능력과 정책 검증은 온데간데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전직 의장 출신 인사를 향한 제 식구 감싸기와 겉핥기식 질의로 청문회 무용론까지 재점화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 일색으로 꾸려진 이번 부지사 청문회가 과연 제대로 된 송곳 검증을 해낼 수 있겠냐"면서 "도정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저버린 채 또 하나의 '요식 행위'이자 '통과의례'를 되풀이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도정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추자해상풍력 송전계획 수정

>>1면에서 계속=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시행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추자 해상을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 구역으로 선정해 도에 통보했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발전 용량과 전력계통 연계 방안, 경제성 검증 등 기본 설계를 비롯해 사업자 공모와 인허가 절차를 국가가 주도한다.

해상풍력특별법상 '제주특별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정부는 추자해상풍력은 아직 지구 지정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 풍력 조례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허가 대상을 풍력발전 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시책으로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선 도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은 관할 구역 등 '공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비지구가 돼 국가가 주도하면 개발 수익을 불특정 다수가 나눠갖는 이익 공유도 불가능하다며 도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풍력 개발 수익을 거둬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특별법은 투자한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주도도 장점이 많지만 우리 입장에선 기존 방식이 더 실익이 많다. 이런 의견을 기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 축 임
CONGRATULATIONS

이 상 봉
(본회 통합3대회장)

제 주 시 장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연합청년회 역대회장 협의회
협의회장 강 익 상 외 회원일동

현 탁 하(제주시5대회장) 양 은 범(북제주군5대회장) 강 경 훈(북제주군6대회장)
김 정 균(통합2대회장) 이 상 봉(통합3대회장) 고 택 남(통합5대회장)
고 연 종(통합6대회장) 박 왕 철(통합7대회장) 김 성 욱(통합8대회장)
용 상 수(통합9대회장) 양 성 국(통합10대회장) 홍 준 식(통합11대회장)
문 정 식(통합12대회장) 장 현(통합13대회장) 고 성 균(통합14대회장)
이 승 환(통합15.16대회장) 김 성 진(통합17대회장) 양 동 헌(통합18대회장)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지방이사관

김 인 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지방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져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날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가 족 일 동

승 축 진
CONGRATULATIONS
지방이사관

김 인 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지방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모 (故)김애숙 · 이모부 김태견